로컬플러스

군산시 월명수영장 5월 11일 개장

군산시 월명수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5월 11일 재개장한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전액인 36억75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월명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월명수영장은 천정 탄소섬유보강 및 천정재 교체, 성인풀·어린이풀 바닥타일 전면교체, 부족한 샤워장·탈의실·건조실 확장, 라커룸 교체 등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현대식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마무리 공사와 시운전 등 운영준비를 완료한 뒤 내달 10일 하루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개방 후 11일 전면 재개장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구명조끼 200개 소방서 지원

군산시, 수난사고 긴급구조를 위한 구명조끼 지원

군산시는 은파호수공원 및 비응항 등 내수면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자동팽창식 구명조끼 200개를 군산소방서에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구명조끼는 물에 투척하면 5초 이내에 구명조끼로 자동 팽창되어 익수자가 착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구명조끼 지원으로 수난사고 발생 시 익수자의 안전확보 및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명조끼 지원을 통해 안전도시 군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농촌이민여성센터 아시아문화체험 행사 24일 개최

익산 농촌결혼이주여성들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농촌이민여성센터 아시아문화체험 행사'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오후4시까지 함열시장 내 센터 앞마당에서 열린다.

(사)농촌이민여성센터주관으로 마련된 이 행사는 '하나의 하늘'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4개국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이주여성들과 시민들이 서로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진행하는 인터넷라디오 공개방송을 시작으로 문화·놀이공연인 부채춤, 포크댄스, 각 나라별 음식체험 및 시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익산=장양원기자

中 옌타이시 '군산사무소' 세운다

장용샤 시장 군산 첫 방문 설립 합의…경제 협력관계 확대키로

군산시와 20여 년 동안 국제자매도시로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온 중국 옌타이시의 '장용샤' 시장이 지난 20일과 21일 군산을 방문했다.

장용샤 옌타이시장 내방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옌타이시 군산사무소 설립 절차를 최종 확인하고, 군산시와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1월 장용샤 시장 취임 이래 첫 군산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 시장은 방문 첫날인 20일 군산시청에서 문동신 시장과 만나 한중 FTA시대를 맞아 양 시의 산업단지를 통해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옌타이시 '군산사무소' 설립을 최종 합의했다.

21일에는 새만금개발청과 한·중 산업단지간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군산을 찾은 옌타이시 1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기업투자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군산시는 옌타이시와 중국 자매우호도시 중 최초로 1994년 11월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후 끈끈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으며, 지난 2014년도에는 양 도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군산시와 20여 년 동안 국제자매도시로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온 중국 옌타이시의 '장용샤' 시장이 지난 20일과 21일 군산을 방문했다.

시는 옌타이시와 교류 증진을 위해 중국 내 일반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수업 '새만금 문화학당'을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옌타이 노동대학 군산시장 특강 등 인문분야 교류 등을 통해 한중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경제 분야 교류 확대 및 우수기업체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 제조 농산물유통업체 30개소와 중국기업 100개소가 참여하는 '중국 내 군산전'을 옌타이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군산시의 노력에 맞춰 옌타이시도 올해 하반기 군산시청 내 현지사무소를 개소해 상호교류의 장을 한층 견고히 다질 계획이어서 양시의 국제교류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원로교수 초대전

개교 70주년 기념 박남재 · 정승섭 교수 작품 전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미술관은 교수 퇴직 후에도 현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양화가 박남재, 한국화가 정승섭 원로교수 초대전을 개최한다.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교내 승산기념관 1층 링크미술관에 문을 연 이번 초대전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8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남재 교수는 장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톤의 굵은 선이 두드러진 〈파도〉, 〈지리산 선유폭포〉, 〈정물 꽃〉 등 그윽한 서양화 전통필법을 따른 12점을 초대전에 내놓았다.

또한, 올해 77세를 맞이한 정승섭 교수 작품은 전통적인 수묵담채의 먹과 물의 조화가 돋보이는 그림 8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해남 대흥사〉, 〈풍경 약초캐는 노인〉, 〈지리산 가는 길〉 등 300호와 200호에 이르는 대형작품이 전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박남재 교수는 대한민국 예술원회원으로 국전 입선 7회를 비롯해 목우회 공모전 최우수상, 대한민국 예술원회원상 등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30주년 기념초대전에 참가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장과 원광대 미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원광대 박물관장과 미술관장 등을 역임한 정승섭 교수는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국전 입선 9회, 특선 3회를 비롯해 국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지냈으며,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 십상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문화산업국 등 현안 추진현황 점검 · 문제점 해결방안 토론

정헌율 익산시장 현안업무 조정협의회 개최

정헌율 익산시장이 20일부터 22일까지 현안업무 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시의 각종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챙긴다.

정 시장은 익산의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오랫동안 끌어온 숙원사업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현안업무 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문화산업국과 상하수도사업단의 현안문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산업단지분양,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U턴기업유치,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시장은 시에 산재해있는 현안문제는 오랫동안 끌어온 장기 미해결 또는 숙원사업 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업과 전 직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눠 소관 부서와 업무를 떠나 익산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은 버리고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익산의 현안문제는 시민과 직원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업체계 구축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익산거주 탈북민과 이북도 민간의 가족결연 행사를 추진하여 동포간 사랑과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탈북민 가족결연 행사를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탈북민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익산서는 지난 20일 익산시 영등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익산지역 탈북민과 이북도민을 비롯한 관계자등 100여명이 참석리에 이북5도 전라북도 사무소와 함께 추진해온 가족결연 행사를 갖고 이북도민 동포사랑과 낯설은 환경에서 외로워하는 탈북민들에게 훈훈한 정을 전달하여 주변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익산서는 이북5도 전라북도 사무소와 함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이북도민과 가족결연행사를 추진하여 20가족 10쌍의 결연가구를 마련 기념품증정과 오찬을 통해 정을 나누고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이동민 서장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은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 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와 연계 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상설장터 개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23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개항장터' 개장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상설장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박물관 개항장터는 박물관이 주관하고 자원봉사팀 회원들의 운영으로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상설장터는 용도를 잃은 물건과 주부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나바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박물관의 대표 문화상품인 근대마당놀이 '수탈전'과 판소리, 민요 등의 공연이 개최되며, 장터 참여자는 근대한복을 착용해 1930년대 근대 개항장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화된 장터가 마련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